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 事例研究

지역축제의 특성화 발전 방안 연구

-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국제트레킹’ 중심으로 -

濟州大學校 經營大學院

觀光經營學科 觀光經營專攻

李 相 憲

2019年 12月

지역축제의 특성화 발전 방안 연구

-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국제트레킹’ 중심으로 -

指導教授 박 시 사 (인)

이 상 현

CM20170308

이 報告書를 觀光學 碩士學位
事例研究報告書로 提出함

濟州大學校 經營大學院

2019年 12月

<목 차>

I. 서론	1
II. 지역축제의 이론적 고찰	2
1. 축제의 개념	2
2. 지역축제 유형	5
3. 전국 지역 축제 현황	8
III.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국제트레킹’ 사례 분석	10
1. 사업의 현황	10
2. 현황 분석	12
3. 문제점	18
IV.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국제트레킹’ 발전 방안	20
1. 향후 발전 방안	20
2. 차별화 전략	23
V. 결론	25
1. 지역축제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26
2. 지역 축제의 활성화 방안	27
※ 참고문헌	30

I. 서 론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축제를 개최하여 각 지역의 관광 산업을 발전시켜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또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일정 수준의 자율적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축제로서 지역 특색에 적합한 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관광 이미지의 제주도는 관광지 및 관광자원 개발의 중요성을 타 지역 보다 크게 인식하고 있어 지역축제에 대한 관심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축제는 지역민 공동의 가치관을 형성하며, 공동의 문화적 공감을 이끌어 내고, 지역사회의 연대와 주민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문화발전, 지역 이미지 제고, 지역의 경제 발전 등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제 분야의 향상을 동시에 이끌어 낼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축제들은 해당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잠재력을 발전, 육성시켜 축제로 승화시키고 이를 관광 상품화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향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축제를 통한 직간접적인 파급효과가 지역을 발전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노길수, 2012) 1)

그리고, 지역의 전통문화의 발굴 및 계승과 지역자원의 잠재력을 강화시켜 경쟁력을 갖춘 지역사회를 구현할 뿐만 아니라 선진 각국의 주요관광도시들은 다양한 지역축제 개최를 통해 관광성수기를 연장시키고 관광비수기의 대안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부 대자본을 유치할 경우, 지역사회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부작용 및 개발이익의 외부 누출로 중국에는 지역이 황폐해 지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소자본으로 지역 고유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지역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종관, 2015) 2)

이렇게 지역축제가 중요한 점은 지역축제란 말 자체로 지역의 역사와 전통과의 직접적인 관련성 속에 진행되는 지역행사이기 때문이다(서철현·고호석, 2000) 3)

따라서 본 연구 주제인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국제트레킹’은 지역의 단순 관광

1) 노길수 (2012), 지역 겨울축제의 방문객 만족도 측정 및 활성화 전략 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2) 김종관 (2015). 축제 서비스품질이 방문객 및 축제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문화산업학회

3) 서철현, 고호석 (2010), 지역축제 선택속성과 방문객 애호도의 영향 관계 분석, 한국호텔외식관광경영학회

상품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민들의 화합을 다지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는 새로운 매력물이 되는 지역기반의 문화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으로, 본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지역축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축제의 개념과 현황은 물론 지역축제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고, 본 주제인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국제트레킹’의 대략적인 개요와 그 현황을 분석하고, 더불어 문제점과 개선 과제 및 차별화 전략을 통한 발전 방안까지 모색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개최 마을에 사회적·경제적·환경적으로 기여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지역축제의 이론적 고찰

1. 축제의 개념

1) 축제의 기원

지역축제의 이론적 고찰을 위해 우선 축제의 기원, 개념부터 파악해 보고자 한다. 축제(祝祭, festival)의 사전적 의미는 ‘축하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행사를 이르는 말’ 또는 ‘축하의 제전, 축하와 제사’로서 합성어 성격이 강하다. 전통축제의 경우 후자의 의미에 가깝고 오늘날의 축제는 전자의 의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축제는 원래 예술적 요소가 포함된 제외에서 비롯되었으나 유희성이 강조된 나머지 오늘날에는 종교적인 의미가 거의 퇴색된 것이다.(목포시 지역축제의 발전방안, 2003) 4). 종교적 권위가 쇠퇴하고 세속적인 다양한 정치 경제적 제도들이 정교해지며, 사회가 분화함에 따라 이들의 모습 또한 점차 변하게 되었다. 특히 의례와 구분되지 않았던 축제는 놀이 혹은 유희의 속성이 두드러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역사학자이자 문화학자인 요한 하위징아(Huizinga, Johan)는 그의 저서 『호모 루덴스(Homo ludens)』에서 제의와 놀이 그리고 축제는 근본적으로 매우 유사하다고

4) 목포시 지역축제의 발전 방안 (2003), PP 9~ 16.

논의하고 있다. 5) 그에 따르면, 일상생활의 공간적 분리 혹은 격리, 참여하는 구성원들의 ‘진지한’ 집중 그리고 그에 따른 일종의 ‘생활의 정지’는 이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속성이다. 이러한 관점에 비춰 애초에 이들 각각은 서로의 모습들을 일부 포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에서의 지역축제는 대부분 일제 강점기 시절 탄압을 받아 전통적인 한국 고유의 전통축제는 그 맥이 거의 끊기고 사라졌으나, 이후 지역 주민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산발적으로 일부 개최되기도 하였다.

2) 축제의 정의

축제의 사전적 의미는 “축하하고 제사지냄”, “경사를 축하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행사를 이르는 말” 등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한 ‘축제는 일반대중을 위한 주제를 가진 기념 의식이다’라고 정의하기도 한다. 축제를 영어로 표현하면 Festival인데 이는 14세기 때 만들어진 말이고, 즐겁고 흥겹다는 뜻을 지닌 라틴어의 festivus에서 유래되었으며, Carnival이라고도 표현한다. 이처럼 축제라는 개념은 크게 ‘축하하는 즐거운 행사’라고 정의할 수도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다양하고 포괄적이며, 복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더욱이 시행되는 주체에 따라서도 상이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정의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축제는 원래 개인 또는 집단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일 혹은 시간을 기념하는 일종의 의식을 의미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축제가 지역 기반 문화 산업으로 인식되면서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놀이 문화의 관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축제는 점점 대중적이고 효율적인 기획과 제작 방식을 활용하며, 참여자들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유도하는 이벤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지식을 기초로 지역축제의 개념 정의를 요약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좁은 의미의 정의로서 지역과 역사적인 상관성 속에 생성, 전승된 전통적인 문화유산을 축제화한 것이다. 또한 두 번째로 넓은 의미에서의 축제는 전통축제 뿐만 아니라 문화제, 예술제, 전국민속경연대회를 비롯한 각 지역의 민속예술경연대회 등 문화 행사 전반을 포괄하게 되어, 최근의 축제는 문화 행사 전반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본다. 축제의

5) Huizinga, Johan (1955), 저서 『호모 루덴스(Homo ludens)』 권역빈 역, 서울: 홍성사

정의에 대해서 좀 더 여러 학자들의 이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국제적 학자들의 ‘축제’에 대한 정의

구분	학 자	내 용
	이경모	주어진 기간 동안 정해진 장소에서 사람을 모이게 하여 사회,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는 행사 또는 의식으로 비일상적으로 특별히 계획된 활동
	장은주	시간과 공간을 한정하여 다수의 대상을 현장에 참여시켜 직접적인 체험을 이끌어내기 위한 쌍방향적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총칭하는 비일상적 행사
한국	김명사	좁은 의미로서는 지역과의 역사적인 상관성 속에 생성, 전승된 전통적인 문화유산을 축제화한 것이며, 넓은 의미로는 이러한 전통축제 뿐만 아니라 문화제, 예술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를 비롯한 각 지역의 문화행사전반을 포함, 협의보다는 광의를 받아들여 지역축제의 범위를 확대시킴
	김선기	소규모 행사는 “잔치”라 표현하여 ‘축제’를 분리하였지만, 규모가 큰 행사에도 잔치 또는 축제라는 말을 사용하는 등 사실상 개념의 분별 없이 축제의 용어사용이 넓어지는 추세
	한국관광공사	사회적, 시대적으로 의의를 부여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
	구마노	뭔가의 이변을 일으키는 의도된 것, 즉 기업이나 단체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하는 비일상적인 특정한 활동
일본	일본 이벤트 진흥회	기업이나 지자체의 메시지를 소비자나 지역주민에 전달하는데 적합한 커뮤니케이션 미디어
	Donald Getz	후원 또는 조직단체의 프로그램 및 활동 이외의 일회성 성격을 가지며,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여가, 사교, 문화적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기회
	Eliade	인간의 종교, 사회, 문화 등의 제도와 활동이 확립되는 초월적 내지 초자연적 영역
서양	Wilkinson	한정된 시간동안 특정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계획된 일회성 행사
	Joe Goldblatt	항상 계획되고, 항상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축하의 이유를 제공함으로서 동기유발

2. 지역 축제 유형

지역축제는 지역주민의 생활과 문화를 축제를 통하여 집약적이고 함축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지역문화의 총체라고 할 수 있을(윤태범 1998) 6) 뿐만 아니라 지역축제는 지역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 지역의 차별된 공간과 시간을 표현하고, 이에 그 참여자들을 동화시키는 제전이다. 지역사회의 한 단위로서의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은 자연적 및 사회적인 환경에 기초하여 살아가는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독특한 생활양식을 형성 하는 바 이것을 ‘지역문화’ 7)라고 한다.

이에 현대적 의미의 지역축제는 여러 가지 의미와 내용을 복합적으로 지니고 있어 그 성격을 뚜렷이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아 우리나라의 지역축제 분류는 연구자나 분류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으로 분류하여 왔다. 또한 개최목적 또는 프로그램 구성형식에 따른 분류기준은 현실적으로 애매모호하고 분류결과가 상호 중복되어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가 있어, 여러 학자들 간에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문화체육부 1996) 8)

또한, 우리나라 문화체육부(1996)에서 발간한 「한국의 지역축제」라는 책에서는 축제에 대한 분류를 개최목적과 프로그램이나 행사내용에 따라 축제를 분류해 놓았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축제의 개최목적에 따라 주민화합축제, 관광축제, 산업축제, 특수목적 축제로 나누었다. 주민화합축제는 주로 해당지역에서 전통적으로 개최되어 온 전통문화축제를 비롯하여 비교적 최근에 많이 개최되기 시작한 구(시·군)민의 날 행사 등을 가리킨다. 관광축제는 관광산업 발전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육성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축제이다. 산업축제는 농림축산업, 어업, 상업 등의 발전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축제를 말한다. 특수목적축제는 환경보호 또는 역사적 인물이나 사실을 추모하거나 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개최하는 축제를 말한다.

6) 윤태범 (1998), 지역문화자원의 산업화 정책, 김익수 오연천 외 (전환기의 지역경제정책), 삼성경제연구소.

7) 이문용, 「지역문화사업과 지역활성화」, 『지역사회, 지역문화 토론회』, 한국문화정책개발원, 2001, 30쪽. ‘지역문화’란 “주민의 구체적인 생활기반인 지역의 자연적, 역사적, 사회적 특성을 바탕으로 주민들 스스로가 생활환경과 생활양식을 개선해 나가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정신적인 만족을 얻기 위한 활동의 소산”. 또한 ‘지역문화’란 ‘일정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습득된 지식, 신앙, 예술, 윤리도덕, 관습 등의 모든 능력과 습관을 포함하는 총체’로서 일정 주민이 오랜 세월 동안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특징적인 생활양식을 의미한다고 풀이.

8) 문화체육부 (1996), 한국의 지역축제.

둘째, 축제의 프로그램이나 행사 내용에 따라 전통문화축제, 예술축제, 종합축제, 기타축제로 나누었다. 전통문화축제는 지역의 전승설화나 풍습에 유래하여 개최되는 축제로 전통적인 제례의식, 전통예술 및 민속놀이 위주로 구성된 축제이다. 예술축제는 축제의 프로그램 구성이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등 현대적인 전시예술 및 공연예술 위주로 구성된 축제와 서구 문화적인 축제를 가리킨다.

종합축제는 전통문화축제 형식, 예술축제 형식, 체육행사 및 오락 프로그램 등이 혼재되어 있는 축제를 말한다. 기타축제는 위에서 분류된 축제 이외에 체육행사를 비롯한 오락 프로그램 위주의 축제, 아가씨 선발대회 위주의 축제, 추모제사 형식 및 이와 관련된 학술행사 등 주로 독창성이 있는 단일한 소재나 내용으로 구성된 축제를 지칭한다(문화체육부 1996, 104- 106) 9).

또한, 한편으로는 지역축제에 대한 유형, 구분으로 ‘개최목적’에 따라 주민화합축제, 관광축제, 산업축제, 특수목적축제로 나누었고, 지역 축제의 ‘프로그램 구성형식’에 따라 전통문화 축제, 예술 축제, 종합축제, 기타축제로 각 각 분류하고(유영대 외 2인, 1996) 10) 있는 경우도 있어 축제의 유형, 구분에 대해서는 참고하여야 한다.

<표 2> 개최목적에 따른 지역 축제의 유형

구 분	내 용
주민화합축제	지역 전통문화 축제, 구·시·군민의 날을 기념하여 벌이는 이벤트
관광축제	관광산업발전과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육성
산업축제이벤트	관광이외의 농림축산업, 어업, 상업 등의 발전도모
특수목적축제	환경보호, 역사적 인물이나 사실을 추모하거나 재현하는 축제

9) 문화체육부 (1996), 한국의 지역축제, 문화체육부

10) 유영대 외 2인 (1996), 한국의 지역축제, 서울: 문화예술진흥원.

<표 3> 프로그램 구성형식에 따른 지역축제의 유형

구 분	내 용
전통문화축제	지역의 전승설화나 풍습에 유래하여 개최되는 축제, 전통적인 제례의식, 전통예술 및 민속놀이 위주로 구성된 축제
예술축제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등 현대적인 전시 예술 및 공연 예술 위주로 구성된 축제와 서구 문화적인 축제
종합축제	전통문화 축제 형식, 예술축제 형식, 체육행사 및 오락 프로그램 등이 혼재되어 있는 축제
기타축제	체육행사, 오락프로그램 위주의 축제, 아가씨 선발대회, 추모제사 형식 등 주로 독창성이 있는 단일한 소재나 내용으로 구성된 축제

이와 유사한 축제의 주요 소재 및 프로그램에 따른 분류로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는 경우도 있어, 축제의 구분에 대해서는 역시 연구자나 분류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고 실정이다.

<표 4> 축제의 주요 소재 및 프로그램에 따른 분류 11)

축제 종류	축제의 주요 소재 및 프로그램
전통문화 축제	전통민속행사, 역사, 제의적 축제, 전승설화, 풍습
현대예술 축제	미술, 음악 등 현대적인 전시 예술 및 공연 예술
산업경제 축제	농림축산업, 수산업, 상업 등 지역특산물
자연환경 축제	지형적 특성, 기후, 동식 등 자연지리적 환경
기타 축제	체육행사, 시·군민·구민의 날 등 기타 소재

11) 김묘진 (2004), 지역축제 프로그램 차별화를 통한 장소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이렇게 분류된 지역 축제는 첫째, 원초적 제의성의 보존, 둘째 향토민의 일체감 조성, 셋째 전통문화의 보존 및 계승 발전, 넷째 경제적 의의, 다섯째 관광적 의의 등 여러 기능을 보유하고 있고 있다(이정학, 서진우, 2004: 문화관광부). 12)

3. 전국 지역 축제 현황

<표 5> 2009년 전국 시·도별 축제 총괄표 (단위: 개)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축제 수	1	47	33	27	10	22	27	1	1	50	81	50	47	48	1	28	921

※ 본 자료는 2009. 5. 12. 현재 16개 시도에서 제출한 지역축제 자료의 종합 임.

<표 6> 2010년 전국 시·도별 축제 총괄표 (단위: 개)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축제 수	69	44	24	23	13	16	21	93	93	51	76	62	34	51	1	31	831

※ 본 자료는 2010. 3. 5 현재 16개 시도에서 제출한 지역축제 자료의 종합 임.

12) 이정학, 서진우, 2004: 문화관광부(www.mct.go.kr)

<표 7> 2017년 전국 시·도별 축제 총괄표

(단위: 개)

시	서	부	대	인	광	대	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합
도	울	산	구	천	주	전	산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계
축													1				7
제	60	33	24	19	8	9	10	78	68	36	90	53	0	65	46	29	3
수													2				3

※ 본 자료는 2017. 현재 16개 시도에서 제출한 지역축제 자료의 종합 임.

<표 8> 자료 집계 기준

전국 축제 집계 기준 13)

: 일정기간(2일 이상) 지역주민, 지역단체, 지방 정부가 개최하며,
 불특정 다수인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관광예술축제를 집계

작성 대상	제외 대상
1. 국가에서 지원하는 축제	1.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행사(경영대회, 가요제, 미술제, 연극제, 시상식 등)
2. 지자체 주최(주관)하는 축제	2. 단순 주민위안 행사(경로잔치 등)
3. 지자체에서 경비 지원 또는 후원하는 축제	3. 순수 예술행사(음악회, 전시회 등)
4. 민간에서 추진위를 구성하여 개최하는 축제	4. 기타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5.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문화관광축제	

13) 2016년부터 작성 대상 기준이 기존 3일 이상에서 2일 이상으로 변경

2009년 5월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총 921개의 전국 지역축제가 개최되었으며 서울, 경기, 강원도에서 우리나라 전체 지역축제의 3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10년 3월에 조사된 자료에 따르면 총 813개로서 전년대비 약 11.7% 정도가 감소하였다. 서울이 69개로 42% 큰 폭으로 감소하였고 경기도와 강원이 각각 93개를 기록했으며, 제주에서는 3개 정도 증가한 총 31개의 지역 축제가 개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2009년, 2010년, 2017년 등 3개 년도의 집계 자료를 살펴보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 사항은 전국의 지역축제가 매년 소폭씩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사항들의 복합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으나, 가장 대표적인 사유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너무 무분별한 지역축제의 남발로 인한 예산 낭비 및 대규모의 인력 투입, 빈약한 수익 등에 대한 문제점 발생으로 지역축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간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반드시 이러한 이유로 전국의 지방 지역축제의 개최 숫자 자체가 줄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는 분명히 여러 다 각도에서의 보다 심도 깊은 연구와 논의 후에 그 이유와 원인을 판단하는 것이 요구되며, 파악된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한 보완 및 개선 대책도 같이 발굴해야 할 것이다.

Ⅲ.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국제트레킹’ 사례 분석

1.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국제트레킹’ 현황

1) 개요

- (1) 개최시기 : 2008년 7월 제 1회 개최 / 매년 07월 ~ 08월 중 개최
- (2) 주최 : 제주특별자치도
- (3) 주관 :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국제트레킹 위원회
- (4) 후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5) 장소 : 세계자연유산지구인 거문오름(벵디굴) 일대, 만장굴, 성산일출봉 일대

<그림 1.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국제트레킹’ 개최 장소>



(6) 목적 :

-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국내외 홍보 활성화 및 보전 방향 제시
- 세계자연유산의 이미지 제고하여 관광인프라 개발로 관광객 유치 확대
- 체험형 관광 및 이벤트를 통한 새로운 관광패러다임 창출
- 마을과 연계한 행사 프로그램 진행으로 마을과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

(7) 사업 효과

- 세계자연유산을 소재로 한 관광인프라 확충
- 세계자연유산 탐방 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
- 세계자연유산 관심 증대
- 유네스코 3관왕 제주 와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홍보 등

(8) 기대 효과

- 세계자연유산을 소재로 한 관광 인프라 구축
- 도내외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관심 증대
- 행사 준비를 통한 세계자연유산인 거문오름의 생태 보존
- 세계자연유산 마을의 지역경제 활성화

2. 현황 분석

1) 개최 준비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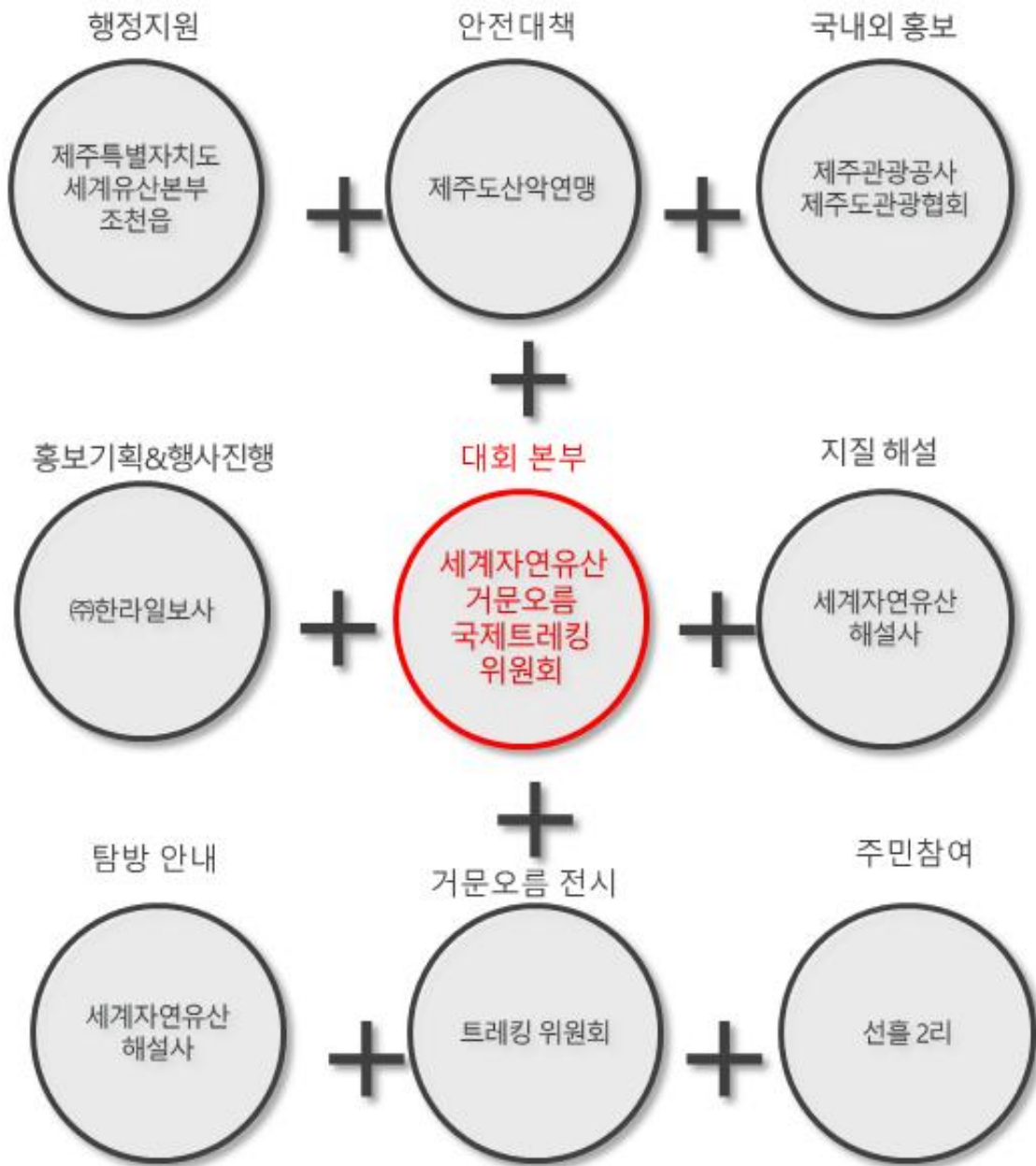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국제트레킹’은 매년 7월에 9~11일 동안 개최 된다. 이를 위해 대략 4월 정도부터 세부 사업 내용을 시기별로 설정하고 같은 해 11월 이전에 모든 프로그램의 정산까지 마무리하고 있다.

<표 9> 연간 준비 일정

준비 시기	개최 준비 내용	비 고
매년 4월 ~	사업계획 추진 및 실무 위원회 개최	
매년 5월 ~ 6월	운영 가이드라인 수립 및 진행	
매년 6월 ~ 7월	홍보물 제작 및 배포(전국 광고 등)	
매년 6월 ~ 7월	행사 물품 준비 및 거문오름 정비	
매년 7월 ~ 8월	행사 개막 및 행사 기간 중 전반적인 운영	
매년 7월 ~ 11월	행사 폐막 등 사후 처리	

2) 조직 구성 및 역할 14)

<그림 2. 조직 구성 및 역할도>



14) 출처 :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국제트레킹 위원회 자료 참조

3) 주요 코스 소개 15)

총 3개 코스 : 총연장 21km(전 구간 또는 선택 탐방)

(1) 태극길(A코스 · 10km)

정상, 분화구, 능선 코스 등을 ‘태극 모양’으로 이루어진 코스

(2) 용암길(B코스 · 5km)

거문오름에서 분출된 용암이 흘러내려간 길

탐방안내소 -> 거문오름 정상 -> 용암길 입구 -> 벵뒤굴 입구
-> 옷밤오름 -> 다희연

(3) 진물길(C코스 · 6km)

용암길 입구에서 벵뒤굴을 지나 흐린내 생태 공원까지의 코스

탐방안내소 -> 거문오름 정상 -> 용암길 입구 -> 벵뒤굴 입구
-> 흐린내생태공원 ※ 코스 중 ‘벵뒤굴’ 동굴 자체는 미 개방

<그림 3. 거문오름 코스도>



15) 출처 :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 (<http://www.jeju.go.kr/wnhcenter/index.htm>) 자료 참조

4) 주요 체험 프로그램

(1) 세계자연유산 펜던트 현장 제작

세계자연유산 탐방 체험 행사기간 중 세계자연유산 비경과 트레킹 행사 관련 사진 시안을 펜던트로 제작, 탐방객들 무료 제공하여 방문한 탐방객들한테 소중한 기념을 제공.

(2) 추억의 우편함 운영

세계자연유산 탐방 체험 탐방객들에게 세계자연유산 엽서를 나눠주고 탐방 소감이나 남기고 싶은 편지, 글 등을 적어 임시 우편함에 넣으면 추후 엽서를 작성한 주소에 우편으로 발송하여 세계자연유산의 탐방 체험에 대한 시간차 추억을 떠올리게 하여 재방문 유도.

(3) 유산마을 공연

세계자연유산지역의 축제 활성화 및 지역과의 연계를 위해 세계자연유산과 관련 있는 개인이나, 단체 혹은 기관(선인분교, 선흘2리 마을회)들이 직접 무대 공연을 하여 탐방객은 물론 참여민의 동질감 확대 추진.

(4) 거문오름 SNS 사진 이벤트

페이스북 내 ‘제주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국제트레킹’ 이벤트 게시판에 ‘거문오름’ 관련 사진 등록하면 추첨을 통해서 5명 선정하여 선정된 5명에게 지역 상품권 지급

(5) ‘나만의 사진엽서’ 만들기

즉석에서 원하는 사진을 찍어 엽서 종이에 인쇄하여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사진엽서를 제작하여 기념 보관 할 수 있도록 한다

(6) 친환경종이에 그리는 캐리커처

대나무사탕수수를 재활용한 100% Recycled 제품의 종이에 그리고 흙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고 펄프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나무를 줄이므로 숲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7) 타투 스티커 제작

얼굴, 손, 팔 등에 직접 타투 스티커를 붙여, 행사를 찾은 모든 탐방객들한테 재미를 주어 다시 찾고 싶은 행사가 되도록 추진

(8) 에코공예

주변의 여러 가지 재료 중 쉽게 구할 수 있고 만들기 쉬운 열매, 나무 등 자연물을 통해 자연에서 얻는 친근감과 따스한 아름다움을 느낀다.

(9) 동백 브로치 만들기

제주도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동백꽃 나무의 열매를 이용하여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천연 동백 브로치를 무료로 만들어가 탐방객들이 가지고 갈 수 있는 프로그램

(10) 움직이는 작은 도서관

하루에 약 50권씩 행사기간 동안 총 500여권의 책을 무료, 무상으로 제공하여 걷기로 인한 육체적인 건강 뿐만 아니라 독서로 인한 마음의 정서적인 안정까지 고려한 프로그램

5) 연도별 탐방객수

<표 10> 연도별 탐방객수 16)

NO	연도	탐방객수		비고
		인원(명)	전년 대비 증감(명)	
1	2018	10,910	+2,669	증가
2	2017	8,241	-2,608	감소
2	2016	10,849	- 4,745	감소
3	2015	15,594	+ 1,999	증가
4	2014	13,595	- 3,457	감소
5	2012	17,052	- 3,854	감소
6	2011	20,906	+ 3,161	증가
7	2010	17,745	+ 669	증가
8	2009	17,076		
합계		131,968		

16) 출처 : (주)한라일보 홈페이지 (<http://www.ihalla.com>) 참조

3. 문제점

1) 셔틀 버스 종점 문제

셔틀버스의 정류장 3곳 중 종점이 탐방안내소 주차장이 아닌 마을 주변의 舊 탐방안내소로 되어 있어 많은 탐방객들의 혼란과 불평이 있었다. 마을 상권을 활성화 시킨다는 의미로 시작되었지만, 탐방객들은 센터 주차장이 아닌 곳에서 내려 다시 주차되어있는 곳까지 걸어와야 하는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 탐방코스에 정상 반드시 경유 재검토 필요

탐방코스에 정상등정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부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거문오름 탐방은 태극길이나 용암길을 가려면 반드시 정상을 거쳐 삼거리에서 태극길이나 용암길 탐방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지만, 일부 탐방객들은 정상을 거치지 않고 태극길이나 용암길을 가려고 해 행사 관계자와 간혹 실랑이가 벌어지곤 한다. 특히 노약자나 심신이 허약한 사람들은 힘든 정상코스를 거치지 않고 무난한 태극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정상코스는 탐방객들의 선택사항으로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체험 부스 운영 내실화 추진

매년 유산마을인 선흘2리에서 주관해 마을에 소재한 업체들의 제품 시식 및 판매부스를 행사기간동안 운영함으로써 거문오름 트레킹 행사가 마을 이미지 제고와 함께 지역제품 판매에 도움을 줘 상생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일부 체험 부스가 체험보다는 판매에 중점을 두면서 체험부스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 점이 있었다. 재료비 지원 등을 확대, 탐방객들이 제대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 판매부스는 내년에는 더 많은 마을소재업체 뿐만 아니라 유산마을 전체로 확대하여 보다 다양한 체험부스가 운영 될 필요가 있다.

4) 명칭문제에 대한 혼란 개선 필요

제주특별자치도는 세계자연유산지구를 아우른다는 이유로 ‘세계자연유산체험행사’로 사업명칭을 변경하여, 그동안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국제트레킹 행사’에서 명칭이 달라진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동안 사용했던 명칭이 달라지면서 기존 행

사와 다른 행사라는 혼란이 불렀고 일부에서는 그동안의 브랜드 가치를 상실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행사 개최 10회 이상 진행된 만큼 확고하고 확실한 정식 명칭부터 확립하여 매년 탐방객들이 의식하여 참여 할 수 있는 명칭 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된다.

5) 셔틀버스 운행시간 조정

용암길 탐방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만큼 탐방객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 첫 운행시간을 종전 오전 11시에서 10시30분으로 앞당겨야 할 것 이다. 탐방코스가 5km여서 보통 성인 걸음으로는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 걸리지만 빠른 사람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에 주파하는 탐방객들도 있다. 특히 행사기간에는 평소보다 1시간 빠른 오전 8시부터 탐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암길 코스만 산행하는 탐방객은 빠른 경우 10시쯤에 완주할 수도 있다. 따라서 셔틀버스 첫 운행시간을 오전 10시30분으로 할 경우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탐방객이 집중적으로 몰리는 시간대(오전 11 ~ 12시)에는 셔틀 버스의 배차 간격을 10분으로 조정하여 보다 탄력적으로 버스를 운행해야 할 것이다.

6) 용암길 코스 거리 안내판 설치

용암길 코스 5km 구간에 대한 거리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사기간에는 5km 코스를 20개 구간으로 나눠 1부터 20까지 일련 번호 안내판을 부착하고 있지만 용암길을 처음 탐방하는 사람들은 거리 감각이 없어 km로 표시를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 내년부터라도 20개 구간 번호 안내판이 아니라 거리 표시판을 부착할 필요가 있다.

7) 뽕뒤굴 앞에 해설사 배치 필요

뽕뒤굴 입구에 해설사 배치가 필요하다. 뽕뒤굴은 제주도에 분포하고 있는 용암돌굴 중에서 가장 복잡한 동굴 내부구조를 갖고 있는 미로형 동굴로서 탐방객들로부터 관심이 많다. 특히 뽕뒤굴에서는 시원한 냉기가 뿜어져 나와 탐방객들은 뽕뒤굴 앞에서 휴식을 취하곤 한다. 행사기간에는 뽕뒤굴 앞에 안전요원이 배치되어 탐방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지만 탐방객들의 다양한 학술적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뽕뒤굴 앞에 해설사를 배치하여 탐방객들에게

벵뒤굴에 대한 지질학적, 생태적 특성을 제대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

8) 당처물 동굴 용천굴 벵뒤굴 영상물 행사기간 관람 필요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에 있는 당처물 동굴, 용천굴, 벵뒤굴은 지질학적 가치가 뛰어나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비공개되고 있다. 하지만 학술적 가치가 높고 평가되면서 탐방객들의 관심도 높다. 따라서 탐방객들이 직접 동굴을 관람할 수는 없더라도 관련 동영상물 행사기간에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 탐방객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필요가 있다.

9) 주차장 및 탐방길 내 진드기 문제

개최 시기가 한 여름이다 보니 아무래도 진드기를 비롯한 여러 해충들의 문제가 있어 탐방객들이 도청 게시판에 민원을 제기한 전례도 있다. 이를 감안하여 탐방로 및 주차장에는 더욱 더 해충에 대한 다방면의 대책이 필요하다.

IV.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국제트레킹’의 발전 방안

1. 향후 발전 방안

본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국제트레킹’의 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첫 개최 이후 총 11회 동안 개최된 그 결과에 따라 돌출된 여러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시 하고자 한다.

1) 탐방 출발 직전에 해설사들이 안전수칙과 탐방수칙을 교육하고 있으나 일부 해설사들이 너무 길고 지루하게 해설하는 관계로 탐방이 지체되는 등 민원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다. 탐방객을 오랫동안 대기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게 핵심 포인트만 교육하고 출발시켜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탐방객이 많이 찾는 주말과 일요일에는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탐방객 현황에서 드러나듯이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을 방문하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지만 체계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 비단 행사기간 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제주세계자연유산지구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노력이 절실하다.

3) 거문오름에 대한 개별탐방객이 늘어나고 있으나 내비게이션에 ‘거문오름’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입력되지 않아 다른 거문오름(도내 거문오름이 5개 있음)을 찾아가는 탐방객들이 간혹 있다. 선홍2리에 소재한 거문오름은 유일한 세계자연유산인 만큼 내비게이션 업체에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으로 수록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4) 매년 행사 개최 시기가 변동 되고 있어 고정된 행사 일정이 필요하다.

매년 개막일 자체를 고정된 날짜 또는 예를 들어 7월 3째주 토요일부터 다음 주 일요일 까지 등으로 아예 고정하여 탐방객들한테 매년 각인된 날짜에 개최되는 것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5) 행사기간 중에는 탐방객 편의를 위해 삼거리 및 용암길 입구에 천막을 쳐 탐방객들이 휴식을 취하고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행사가 끝난 후에는 천막을 철거하고 있다. 따라서 행사기간 뿐만 아니라 행사 이후에도 탐방객들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자연친화적인 원두막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또 세계자연유산센터가 개관되면 탐방출입구가 센터 쪽으로 바뀌게 되어 현재의 탐방로에 대한 관리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거문오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거문오름 둘레에 대한 펜스설치가 필요하다.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만큼 시급한 구간부터 설치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전 구간에 설치가 돼야 한다. 게다가 센터 개관으로 탐방 출발지점이 달라지는 만큼 탐방코스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주변의 여러 새로운 코스의 개발을 진행하여 탐방객들의 재방문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7) 탐방객들이 용암동굴에 대한 호기심이 높고, 거문오름 트레킹만으로는 매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장기적으로는 트레킹에만 그치지 말고 용암동굴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폐쇄하고 있는 벵뒤굴 입구 쪽을 정비해 조명시설과 안전시설을 갖춰 탐방객들이 입구쪽에서 벵뒤굴 안을 관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

8) 거문오름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자연적 요소가 크지만 희소가치가 높은 지질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해설사들의 해설을 보면 식생, 문화, 역사적 측면만 지나치게 강조되는 면이 없지 않다. 용암구, 용암협곡 등 거문오름의 지질적 가치에 대해서도 해설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9) 거문오름 분화구내 삼나무에 대한 간벌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과도하게 간벌이 이뤄졌고 간벌된 나무들이 군데군데 방치돼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만큼 행사 기간 이후에 간벌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 됨.

10) 탐방객 현황에서 드러나듯이 여전히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는 아직 미흡한 실정. 비단 행사기간 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제주세계자연유산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노력 절실하여 전 세계를 대상으로 홍보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인 해외 마케팅 추진이 필요 함.

11) 탐방객들이 용암동굴에 대한 호기심이 높고, 거문오름 트레킹만으로는 매력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장기적으로는 트레킹에 그치지 않고 용암동굴과 연계하기 위한 방안 검토.

12) 용암길 코스 5km 구간에 대한 거리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행사기간에는 5km 코스를 20개 구간으로 나눠 1부터 20까지 일련번호 안내판을 부착하고 있지만 용암길을 처음 탐방하는 사람들은 거리 감각이 없어 km로 표시를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다. 추후부터 20개 구간 번호 안내판이 아니라 거리 표시판을 부착할 필요가 있다.

13) 세계자연유산센터에서 삼거리로 가는 탐방로는 송이길로 다져 있다. 하지만 비가 내리고 많은 탐방객들이 이용하면서 다져진 송이길이 헤쳐지면서 송이 자갈이 집중적으로 형성된 곳이 있어 탐방객들이 가끔 미끄러져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 또 집중호우로 인해 송이길이 꽤여 작은 고랑이 만들어진 곳도 있다. 탐방객 편의를 위해 송이길을 정비한 후에 행사를 개최하여 보다 안전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

14) 거문오름 탐방코스는 크게 태극길, 용암길로 나뉘고 두 코스 모두 세계자연유산센터에서 출발한다. 센터가 건립되기 이전에는 舊 탐방안내소에서 출발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마을 안길을 거쳐 들어가고 나왔었다. 하지만 센터 건립 후 탐방출발과 도착지가 모두 세계유산센터가 되다 보니 선홍 2리 주민들의 거문오름 트레킹에 대한 애착심이나 관심도가 종전보다 줄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거문오름 트레킹이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마을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 탐방코스는 그대로 유지하되 벵뒤굴 쪽에서 마을안쪽으로 들어오는 탐방코스를 개발하여 탐방객들이 마을을 경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소들을 방목하면서 사용했던 길을 보수하면 새로운 탐방코스로 개발 되는 것은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다. 다만 코스 상당부분이 숲길이 없는 길이어서 탐방객들이 햇볕에 노출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 코스 개발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차별화 전략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국제트레킹’의 문제점 및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단순하게 이에 그치지 않고 본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국제트레킹’이 보다 방향성을 갖추고 발전 할 수 있도록 차별화 전략까지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차별화 전략은 단순 본 행사에만 그치지 않고 전국의 수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주최·개최하는 모든 지역축제에 적용 될 수 있도록 1) 축제 프로그램 관련 2) 축제 수용태세 강화 3)지역관광산업과의 연계 전략 등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제시 하고자 한다.

1) 축제 프로그램 강화

우선, 축제 프로그램 강화로서 방향성 설정하여야 한다. 단순하게 1~2년 행사로의 지역축제가 아닌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프로그램 강화에 역량을 발휘하여 본 행사의 방향성부터 확립하여야 한다.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국제트레킹’이 갖는 기본적인 의미를 되새기며 자연유산의 보호와 지역 축제의 경제성 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방향 설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일명 ‘킬러콘텐츠’의 스토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점점 더 심해져가는 전국 또는 제주내의 지역축제에서 방문객들의 기억에 남아 다시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할 수 있는 것은 킬러콘텐츠라고 생각한다. 유네스코 자연유산다운 자연미의 콘텐츠가 될지, 아니면 기타 이외의 콘텐츠가 될지는 운영 위원회에서 심사숙고를 하고 결정하고 이를 스토리 있게 배치하여 본 행사다운 일정의 프로그램이 탄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축제 프로그램 강화 항목에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특색 있는 프로그램과 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에 대해 좀 더 주력을 하여 세계 속의 지역축제로 발전 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2) 축제 수용태세 강화

본 연구에서 밝힌 본 사업의 문제점에서도 대두된 셔틀버스, 교통 편의성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우선 셔틀버스 운영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할 것이며, 특정 시간대 이용객 분산이 필요하며, 트레킹 행사답게 안전한 보행자 동선 확보가 기본으로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의 특색을 반영한 먹거리 및 살거리의 다양한 개발이 필요하다. 제주의 유명 음식점을 입점시키고 특색 있는 음식 관련 구역을 설정하며 도내 농수축산물을 활용한 먹거리 아이템의 개발이 요구되며 특히 젊은 층을 겨냥한 먹거리, 살거리가 필요하다. 특히 살거리(쇼핑)에 대해서는 단순한 기념품 개념이 아닌 ‘거문오름’의 신성성과 기원을 담은 아이템 개발이 요구되며 지역 농산물의 판매에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3) 지역관광산업과의 연계 전략

지역축제가 단순하게 지역민을 위한, 지역에서만의 축제가 아니 궁극적으로는 지역 외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경제성 향상될 것이다. 그러므로 축제에 관광객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 이는 관광 상품 구성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본 전제가 있어야 하며, 그보다 더 원초적인 주요 목표 시장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본 행사의 브랜드 파워의 강화를 위한 아이덴티티의 강화 및 새로운 BI 도입을 제안할 수 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이덴티티 강화와 새로운 BI의 제작은 지역축제의 브랜드 파워를 강화 시킬 뿐만 아니라 본 행사가 열리지 않은 다른 계절 및 시기에도 보다 체계적인 관광자원화를 이룩하여 폭 넓은 관광객들이 다시 찾는 행사가 될 것이다.

V. 결 론

지역축제는 오늘날 거의 모든 지역에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축제의 붐이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급속도로 확산되어 있으나, 지역마다 열리는 수많은 축제가 모두 지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만은 아니다. 우선 이벤트가 유행처럼 지역마다 번지면서 타 지역의 것과 비슷하거나 일과성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행사 자체가 목적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곳이 많은 것이다. 이로 인해 이벤트가 끝난 뒤 도리어 적자를 기록하고 주민들 사이에 갈등을 낳고, 지역의 활성화에 역행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천혜의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한 지역축제의 성공은 제주 관광의 질적 성장을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본 연구의 결론에서는 반드시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국제트레킹’만의 논의가 아닌 좀 더 확대 해석하여 전국의 지역 축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지역 축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적어보고자 한다.

1. 전국 지역 축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현재 전국에는 8~900여개의 축제가 해마다 펼쳐진다. 지자체가 본격 실시된 1995년 이후 지역축제는 가짓수도 많고 그 모양새도 다양하다. 이러한 흐름은 지역 축제를 통한 사회통합과 주민 결속력 강화, 지역 차별화 전략, 축제의 경제적 가치 제고, 관광자원으로서의 기능 등 여러 가지 순기능을 활용하기 위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얼핏 보면 축제의 성격이나 규모가 제각각인 것처럼 보이거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의 흡사하다. 축제가 지자체 실시 이후 지자체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앞 다투어 채택됐음에도 실제 전국의 권역별 문화관광축제는 이름과 외피만 다를 뿐 주제나 메시지는 거의 대동소이하다. 때문에 문화소비자들은 참여한 축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불만을 토해내고 문화적 만족도는 되레 뒤떨어지고 있다. 이처럼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오늘날의 지역축제는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공통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압축된다.

1) 지역이 없는 지역 축제

지역축제는 자გი지역의 독창적이고 고유한 특성을 가질 때 비로소 지역축제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최되는 많은 지역축제들은 지역축제로서 지녀야 할 지역적 독창성과 정체성이 매우 부족하다. 지역성과 지역문화가 기반이 된 축제가 아닌 천편일률적이고 지역의 차별성을 발견하기가 매우 어려운 축제이다. 어느 지역이나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심지어는 축제의 제목까지도 유사하여, 지역축제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2) 주민이 없는 지역축제

지방자치하의 지역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 주도의 행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즉 상당 부분의 지역축제가 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인 판단과 의도에서 개최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사의 처음에서 끝까지 관 주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이며, 지역주민이 이러한 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형식성을 떨 수밖에 없다.

3) 여건이 갖추어 지지 못한 지역축제

현재 지역축제는 개최를 위한 기본 여건이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획력과 재정의 부족, 행정지원체계의 부실 등을 지적받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 지역축제의 관광자원화 전략의 부재와 홍보대책의 미흡 등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전국 지역 축제의 활성화 방안

우리의 지역축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지역축제가 제 모습을 찾고, 나아가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진정한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새로운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지역의 독창성 확보

지역의 문화콘텐츠는 독창성이 있어야 한다. 지역문화의 콘텐츠는 해당지역의 특수성과 역사성, 지역주민의 성향을 고려하여 선정·개발하여야 하며 창의적이어야 한다. 콘텐츠의 독창성은 단시일 내에는 달성하기는 힘들며, 끊임없이 그 내용을 참신하게 업그레이드 하고 연구개발 하여야 한다.

또한 타 지역 문화콘텐츠에 비해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들이 성공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때문에 서로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어 콘텐츠의 참신성이 희석되고 차별성이 사라지게 된다. 이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독자적으로는 해결하기가 어려우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할 부분이다. 가령, 어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산업으로 최초로 기획하고 창안한 프로그램이나 콘텐츠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주어 보호하는 방법이 있다.

2) 지역주민의 참여 유도

어떠한 지역문화산업도 해당 지역주민의 호응과 참여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 부천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부천 국제학생애니메이션 페스티벌 및 판타스틱 영화제의 지역산업 인프라는 타 지역의 문화산업 인프라에 비해서 비교적 훌륭하다고 할 수 있지만 지역주민의 관심과 열정이 부족한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유인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3) 기타 활성화 방안

상기 지역의 독창성 확보와, 지역 주민의 참여 유도에 추가하여 기타 활성화 방안 사항으로는 체계적인 조직 구성 및 전문 인력 확보 및 양성을 추가로 제시하고자 한다. 단발성의 이벤트 형식의 지역축제가 아니라면, 보다 체계적인 조직 구성으로 전문 인력을 확보, 양성하여 보다 미래지향적인 자세로 지역 축제를 개최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주민이나 외지 관광객들로 하여금 축제에 대한 방문욕구를 유발시키기 위한 최적의 수단으로 축제에 대한 홍보를 들 수 있겠다. 17)

홍보를 위한 매체는 대부분의 축제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기존의 TV, 라디오, 신문, 각종 인쇄물 등이 홍보활동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미디어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자료 수집과 홍보 활동도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축제 관련 홈페이지의 기능적 효과는 두 가지이다. 첫째, 그 지역축제에 관심이 없었는데 홈페이지를 보고 축제에 참여하도록 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홈페이지의 기능과 디자인이 좋아 입소문이 나면 디자인 업계 사람들은 물론 일반인들까지 방문하게 된다. 둘째, 축제에 참가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축제에 참여한 기분이 들 정도로 생생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또한, 축제를 다녀온 사람도 그 때의 기억을 되살리며 자료를 찾을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 축제가 끝난 후 에피소드, 각종 문서자료 및 축제의 생생한 화면을 담은 동영상 볼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박성호 2000, 57- 58) 18).

그런데, 축제의 홍보 및 안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기적소에 필요한 홍보

17) 권자경 (2001), 지역축제의 유형별 발전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정학과 석사학위 논문

18) 박성호 (2000), '축제 어떻게 팔 것인가 - 축제 홈페이지 개발 방안', 문화도시·문화복지 76:56-59.

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어느 한 수단에 치중하여 홍보 활동을 펴기보다는 홍보 활동의 각 단계별로 적절한 활동 수단들을 이용하는 것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구분된 홍보 활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초 홍보단계에서는 국내외적인 관심 유도를 위해 주요 여행사 팸투어, 순회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축제 방문 및 관광 상품 구매 유도 단계에서는 국내외 여행사 홍보, T V광고, 신문광고 등을 실시하며, 축제 이미지 실현단계에서는 주요 행사 브리핑, 관련 방송 섭외 활동 등이 있으며, 축제 평가 단계에서는 관련 기사에 대한 예방 및 사후 관리 등의 홍보 수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국 내 문 헌

- 김의근(2018), 제주들불축제 중심의 지역축제 특성화 발전 방안 연구
- 노길수 (2012), 지역 겨울축제의 방문객 만족도 측정 및 활성화 전략 방안에
관한 연구, 대진대학교 대학원
- 김종관 (2015), 축제 서비스품질이 방문객 및 축제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문화산업학회
서철현, 고희석 (2010), 지역축제 선택속성과 방문객 애호도의 영향 관계 분석, 한국호텔
외식관광경영학회
- 문화체육부(1993), 한국의 민속예술, 문화체육부
- 문화체육부(1996), 한국의 지역축제, 문화체육부
- 이정학, 서진우(2004), 문화관광부
- 서연호(1996), 한국의 축제, 서울: 문화예술진흥원
- 유영대 외 2인(1996), 한국의 지역축제, 서울: 문화예술진흥원
- 이원태(1995),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축제 운영방안,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장은주(1996), 지방자치단체 이벤트사업의 활성화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장장식(1996), 한국의 지역축제, 서울: 문화체육부
- 정강환(1996), 이벤트관광전략, 서울: 일산사
- 최승담(1995), 지방화시대의 관광개발, 서울: 일신사
- 한국관광공사(1994), 지방화시대의 관광정책, 서울: 한국관광공사
- 한국관광연구원(1999), 문화관광축제의 영향 및 운영효율화방안
- 한국문화정책개발원(1997), 지역축제를 통한 문화관광상품 개발 방안 연구, 서울: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Huizinga, Johan (1981), 저서 『호모 루덴스(Homo ludens)』 권역빈 역, 서울: 홍성사
- 목포시 지역축제의 발전방안, 2003.
- 이문웅(2001), 지역문화사업과 지역활성화, 지역사회, 지역문화 토론회, 한국문화
정책개발원
- 김미란(2005), 지역축제에 관한 연구 : 소통과 탈 소통적 속성을 중심으로,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묘진(2004), 지역축제 프로그램 차별화를 통한 장소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자경(2001), 지역축제의 유형별 발전방안에 관한 실증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정학과 석사학위 논문

2. 기 타 자 료

<http://www.ihalla.com/> (주)한라일보

<http://www.jeju.go.kr/wnhcenter/index.htm/> 제주세계자연유산

<https://jito.or.kr/korean/> 제주관광공사

<http://www.visitjeju.or.kr/>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http://www.visitkorea.or.kr/intro.html/> 한국관광공사

<http://www.kcti.re.kr/web/user/> 한국문화관광연구원

<http://www.mct.go.kr/> 문화관광부